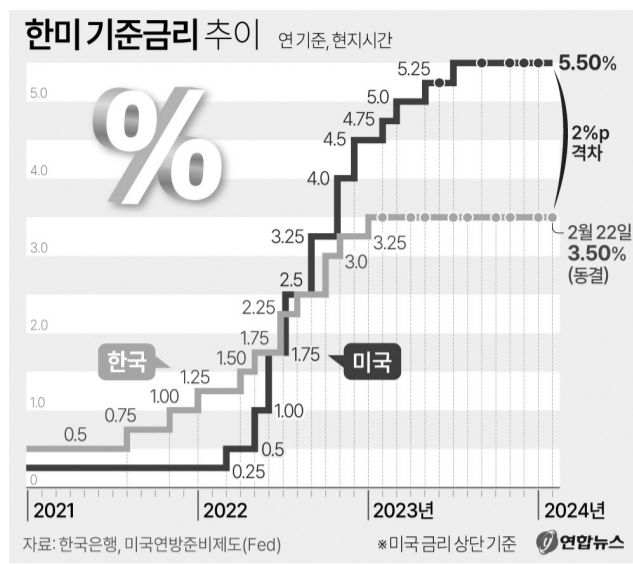


물가·가계부채 부담에...한은, 기준금리 9연속 3.5% 동결

금통위,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에도 아직 불안...가계부채 증가도 영향 미국 '인하 신증론'도 영향...연준 6월께 낮추면 하반기 완화 가능성 이창용 한은 총재 "총선후 부동산 PF 건설업계 줄도산 예측 오해" 일축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치솟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22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본관에서 개최된 올해 두번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연 3.50%)로 동결하고,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통위는 지난해 2·4·5·7·8·10·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9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묶었다.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는 물가상승

률 둔화 추세에도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한은은 당초 물가 목표치를 2.0%로 지정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기준 2.8%에 머무르고 있다. 또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게다가 한은은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연 5.25~5.50%)와 역대 최대 금리 격차(2.0%p)를 보이고 있는 만큼, 외국인 자금 유출 및 환율 불



안 등의 우려를 감수하고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신증론'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21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6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 기존 연 5.25~5.50%에서 3차례에 걸쳐 0.25%p씩 총 0.75%p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오는 6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 및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르르면 7월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물가 안정을 확실하게 하려면 만큼 늦으면 4분기에 인하할 수도 있다는 견해다. 더불어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도 발표했다. 한은이 '경제전망'을 통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

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각각 2.1%와 2.6%로,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어 내년 경제전망에서도 경제성장률(2.3%)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1%)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총재는 오는 4월 총선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이 총재는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관리 하에 부동산 PF가 상당수 정리되고 있다"며 "총선 전후로 크게 바뀔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PF가 모두 살아날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한다"며 "PF문제는 미시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야지, 금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형일 통계청장 "지역 밀착형 통계서비스 제공...인프라 강화 집중"

호남지방통계청 방문 업무 추진방향 등 청취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 21일 이형일 통계청장이 호남지방통계청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호남지방통계청을 찾아 올해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듣고, 현장조사에 중사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직원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통계를 생산하고 지역의 역동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호남청 직원들이 올해도 함께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빈현준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현장조사 품질 제고로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계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지역 밀착형 통계 분석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국



이형일 통계청장과 호남지방통계청 임직원들이 '2024년 호남지방통계청 업무보고' 행사를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공>

민 친화적 응답 환경 조성을 위해 소통 채널을 다 갖겠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 치솟는 분양가에 준신축 눈길

1월 아파트 거래 광주 20% 상승 신학기 앞두고 '반짝' 상승 영향

지난달 광주와 전남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기를 앞두고 이동이 많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광주의 경우 2000만원 가량의 고분양가에 시민들이 신축이나 준신축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광주지역 아파트 거래는 1102건으로 전월(880건)보다 22.2%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계약분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2월 말까지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의 지난 1월 아파트 거래량은 1187건으로 13.6%(161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광주지역 아파트 평당(3.3㎡) 분양가가 2000만원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입주 10년 미만의 준신축, 넓게는 구축까지도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보증공사가 발표한 지난 1월 광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평당 1853만원이었지만, 최근 분양에 나선 '중외공원 힐스테이트'가 평당 2000만원, '힐스테이트 신용 더 리버'는 2280만원을 내걸었다. 전국적으로도 급격하게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가 1월 들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는 총 2만8113건으로 전월(2만4121건)에 비해 3992건(1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025건으로 12.6%(228건) 늘었고, 인천은 1354건(28%·385건 ↑), 경기는 5723건(19%·1130건 ↑) 각각 증가하는 등 모든 광역시·도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신학기를 앞둔 '반짝' 상승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현재 경기 상황이나 금리 수준을 보면 아파트 거래 시장이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NH투자, 한전 요금 인상 관련 정치·경제적 변수 줄어...목표가 높여

목표가 3만원... '매수' 유지 의견 전력구입가격 안정화도 '긍정적'

NH투자증권은 22일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 정당성이 높아졌다는 한국전력의 목표주가를 기존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높였다. 투자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진재 연구원은 이날 관련 보고서에서 한전의 향후 투자계획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현되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

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전력은 대규모 적자 이후에 계획 대비 70~80%에 불과한 시설투자(CAPEX) 투자로 매년 3조~4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원전과 가스로의 연료 전환, 이를 뒷받침해줄 송배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 강화 방안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정치·경제적 변수가 적어졌다"라고 평가했다. 전력도매가격(SMP·전력구입가격)이 안정화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 연구원은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PNG)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고 원전·풍력과 태양광 발전량도 늘려 천연가스 수급을 안정화하고 있다"며 "다가올 동절기까지 추가적인 변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LNG 가격 하락으로 SMP 역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 아파트매매가격 8주 연속 하락

올들어 광주의 아파트매매가격이 8주 연속 하락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3주(2월 19일 기준) 광주의 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4% 하락했다. 광주는 1월 첫째주 0.04% 감소를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구와 남구가 -0.05%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광산구 -0.04%, 동·북구가 -0.02%를 기록했다. 전남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남은 2월 1주 아파트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1% 오르며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2월 2주 -0.01%를 보인데 이어 이주 -0.02%를 나타냈다. 전세가격은 광주의 경우 전(前)주와 같았고, 전남은 0.02% 하락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숙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전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